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50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経済新聞

※ 대상 기간 : 2025.07.17~2025.07.23

①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②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7
▪ 중국	
– 헝난성, 고용·기업·소비·투자 등 안정 조치 발표	6
– 제6차 중한(선양) 스타트업 교류회, 협력 성과 재차 달성	6
– '14.5계획' 교통 목표 17개 중 6개 조기 달성, 11개 연말 완성 예정	7
– 상무부, 상반기 외자 유치 4,232.3억 위안 기록	8
– 2024년 중국 인공지능 산업 규모 7,000억 위안 돌파	9
– 상하이, 하반기 5억 위안 소비 쿠폰 추가 발행	9
– 신장 첫 저공(비행계곡) 경제산업 혁신시범기지 건설 착수	10
– 텐진, 첫발 경제 고품질 발전 위한 16개 조치 발표	11
– 주택임대조례 정식 발표, '임대구매 병행' 기초 공고히 함	11
– 글로벌 공급망 촉진 보고서 발표	12
▪ 일본	
– 홋카이도, '시험 가능한 대지'로 실증실험 유치...드론 시험에 한랭·광활함 활용 ...	13
– 도요타, 유럽에서 수소 공급망 전체 구축...택시·물류로 잇따라 협업	14
– 도쿄도, 방재대책으로 세계 '허브도시' 목표...기술교류 틀 확대	15
– 전국지사회의, 아오모리에서 개막...인구감소 대책과 외국인 수용 논의	15

- 규슈·오키나와 자동차 관련 기업, 7할 이상이 트럼프 관세로 '마이너스' 전망 16
- 수소산업 진흥 총회, 후쿠오카현에서 개최...약 200명 참가 17
- 규슈 기업, 3분기 만에 수익 악화...4~6월 원재료와 인건비가 부담 17
- 아사히카와·후라노 등 숙박세 신설...총무상이 10개 시정촌에 동의 18
- 간사이전력, 원전 신설 위한 조사 발표 19
- 홋카이도 자동차부품 수출 7% 감소...6월, 9개월 만에 마이너스 19

■ 베트남

- 베트남, 신흥시장 지위 획득 위한 금융개혁안 발표 20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석탄발전 생산량 및 수입 증가...전력 수요 급증 대응 21
- 말레이시아, 말라카 내륙항 개발로 철도 물류 효율화 추진 21

■ 라오스

- 라오스-베트남, 비엔티안서 2025 무역박람회 개최...양국 관계 강화 22

태국

- 태국 차기 중앙은행 총재, 경기 부양 위한 금리 인하 지지 22

■ 필리핀

- 필리핀, 미국에 주요 수출품 무관세 추진 23

■ 싱가포르

- 싱가포르, 동티모르 아세안 가입 지원 위한 'eSTARS' 이니셔티브 발표 24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 교역 활성화 모색 24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新수도 누산타라 개발 사업 일시 중단 검토 25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인프라 채권 규정 도입...시장 주도형 경제 전환 가속화 26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 허난성이 2025년 하반기 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 촉진, 투자 확대 등 36개 정책 조치를 발표함. 인구 규모의 이점을 활용해 소비쿠폰 발행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고용, 기업,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 중국 선양에서 제6차 한중 스타트업 교류회가 개최되어 한국 바이오 기업과 현지 기술 기업 간 합작 계약이 체결됨. 이 행사는 양국 스타트업의 기술 협력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줌
- ✓ 중국 교통운수부는 '14차 5개년' 교통 계획의 17개 주요 지표 중 6개를 조기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11개도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함. 고속철도 및 도로망 확충 등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했음을 강조
- ✓ 중국 상무부는 2025년 상반기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11.7% 증가했으나, 실제 사용 외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한 4,232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다만 첨단 기술 산업 분야 투자는 증가세를 보임
- ✓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2024년 중국의 인공지능(AI) 산업 규모가 7,000억 위안을 돌파하며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발표함. 특히 생성형 AI 제품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출원량도 세계 1위를 기록
- ✓ 상하이시가 하반기 5억 위안 규모의 서비스 소비쿠폰을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함. 문화, 농촌 민박, 스포츠 분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는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해 서비스 소비 활성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
- ✓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최초의 저고도 경제 산업 혁신 시범 기지 건설이 시작됨. 저고도 비행 안전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함께 착수하여, 드론

물류 및 응급 구조 등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힘

- ✓ 텐진시가 신규 브랜드 및 제품의 첫 출시를 지원하는 '쇼우파 경제' 활성화를 위해 16개 조치를 발표함. 전문 서비스 도입, 플랫폼 구축,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의 첫 진출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함
- ✓ 중국 국무원이 '주택 임대차 조례'를 공포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함. 임대차 활동을 규범화하고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서비스 차별 해소 등을 통해 '임대-구매 병행' 주택 제도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둠
- ✓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 촉진 보고서'를 발표함. AI 등 기술 혁신이 공급망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며,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중국의 개방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분석함

○ 일본

- ✓ 일본 홋카이도 시베차정이 광활하고 혹독한 자연환경을 강점으로 내세워 '시험 가능한 대지' 사업을 추진함. 기업들의 기술 실증 실험을 유치해 인구 감소와 산업 문제 해결을 모색하며, 최근 드론 비행 시험 등을 성공시킴
- ✓ 토요타가 유럽에서 현지 기업과 협력해 수소 공급망 전체를 구축하는 사업을 확대함. 연료전지 트럭 물류와 수소 충전소를 포함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 차세대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 ✓ 도쿄도가 주도하는 국제 도시 네트워크 'G-NETS'를 발전시켜 방재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함. 국가 간 갈등을 넘어 도시 간 협력으로 기후변화 등 공동 과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
- ✓ 일본 전국지사회(知事会)가 아오모리에서 전국지사회의를 개최함. 인구 감소 대책, 외국인 수용,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등 지방이 직면한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지방 창생 추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

- ✓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 결과, 큐슈·오키나와 지역 자동차 관련 기업의 71.4%가 향후 1년 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함.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핵심 산업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을 보여줌
- ✓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수소 산업 진흥을 위한 '수소 그린성장 전략회의'가 개최됨. 기업, 지자체, 금융기관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해외 사례 공유와 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을 다짐
- ✓ 니시닛폰시티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6월 큐슈 기업의 수익성이 3분기 만에 악화됨.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됨
- ✓ 일본 총무상이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후라노시 등 10개 지자체의 숙박세 신설을 승인함.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징수된 세금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 사업에 활용될 방침임을 공표함
- ✓ 간사이전력이 미하마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원전 신설을 위한 지질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노후 원전의 대체 건설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탈탄소 전원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됨
- ✓ 하코다테 세관 발표에 따르면, 6월 홋카이도의 자동차 부품 수출이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그동안 호조를 보이던 대미 수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지역 핵심 수출 품목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베트남

- ✓ 베트남이 2027년까지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는 금융 개혁안을 발표함. 이는 프런티어 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지위를 격상시켜 약 5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조치임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가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 생산량과 수입을 늘리고 있음. 국내 가스 매장량 감소와 비용 문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석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 말레이시아 므라카주가 철도 물류 효율화를 위해 내륙항 개발을 발표함. 인근 지역 투자자 지원 및 물류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며,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하이테크 파크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됨

○ 라오스

- ✓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025 라오스-베트남 무역 박람회'가 개최됨. 양국 기업 약 250개가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무역, 투자, 관광 등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역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

○ 태국

- ✓ 태국 중앙은행 차기 총재로 임명된 비타이 라타나콘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힘. 이는 정부와의 통화정책 갈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거시경제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 필리핀

- ✓ 필리핀이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의 선별적 무관세 적용 협상을 추진 중임. 이는 미국의 20%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대미 무역 흑자와 국방 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관세 장벽을 낮추려는 전략임

○ 싱가포르

- ✓ 싱가포르가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eSTARS'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기술 지원과 리더십 개발 등을 통해 동티모르가 아세안의 요건을 충족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설정

- ✓ 싱가포르중화총상회와 메이뱅크가 국경 간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SEZ)을 중심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하원이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 사업의 일시 중단 제안을 검토 중임. 막대한 예산이 드는 무상 급식 등 다른 국가 우선순위 사업과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나스뎀당의 주장에 따른 것임

○ 캄보디아

- ✓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가 인프라 채권 발행에 관한 신규 규정을 도입함.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기업이 주요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시장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허난성, 고용·기업·소비·투자 등 안정 조치 발표 - 중국 허난성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을 위해 '4가지 안정 (고용·기업·시장·기대치)' 달성을 목표로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36개 정책 조치를 발표함. 거대한 인구 및 시장 규모 우위를 활용해 외식·문화관광·숙박·소매 부문에서 소비 쿠폰을 지속 발행하고, 노인과 어린이 대상 서비스,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새로운 소비 성장점을 적극 발굴할 계획 - 기업 지원 정책으로는 성·시·현 3급 기업 방문 서비스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에너지·교통·물류·수수료·금융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하할 방침. 또한 철강·석탄·비철금속·식품가공 등 전통 산업의 질적 향상과 신에너지차·전자정보·장비제조 등 산업의 공급망 확대를 지원하며,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해 정저우-쿠알라룸푸르 '공중 실크로드' 국제 협력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 - 민생 분야에서는 '위젠미래 청춘출발' 등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제3회 전국기능대회 고품질 개최, 유치원과 초등학교 안전 능력 향상 프로젝트, 의료위생 기반 강화 프로젝트, 노인 급식 서비스 네트워크 완비, 보편적 보육 서비스 가격 정책 제정, 행복하천 건설 전면 추진, 도시갱신 중점공정 3년 행동 실시 등을 통해 하반기 민생 보장을 강화 ○ 제6차 중한(선양) 스타트업 교류회, 협력 성과 재차 달성 - 선양시 무역촉진위원회, 주선양 한국총영사관, 중한국제경제무역산업단지가 공동 주최한 제6차 '중한(선양) 스타트업 교류회'가 최근 선양에서 개최됨. 의약품 연구개발, 의료기기, 제조업, 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이오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등 분야의 한국 우수 스타트업 8개사가 참가해 로드쇼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선양 현지 기업과 정밀 매칭을 진행 - 행사 현장에서 한국 KG-BIO와 선양 안나과기유한공사가 합자 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중한 프로젝트 유치 성과를 거둠. 2024년 9월 첫 행사 개최 이후 누적 54개 한국 '전정특신' 기업이 선양을 방문해 의료기기,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등 6대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를 다루었으며, 17개 기업이 협력 의향 달성, 8개 프로젝트 협약 체결, 1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정착 - 중한 스타트업 교류회는 한국 인천시 정부가 선양에 상품체험관 설립을 추진하는 계획을 촉진했으며, 이는 한국이 선양에 설립하는 첫 번째 도시상품체험관이 될 예정. 현재까지 교류회를 통해 170여 개 선양 기업이 한국 스타트업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했으며, 협력 분야는 디지털 기술, 스마트 제조, 자본 매칭, 과학연구 협력 등을 포괄
	○ '14.5계획' 교통 목표 17개 중 6개 조기 달성, 11개 연말 완성 예정 - 중국 교통운수부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확정된 17개 주요 지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 거리, 도시궤도교통 운영 거리, 연해항구 중요항구 철도진항률, 건제촌 택배서비스 도달률, 중점 분야 베이더우 시스템 응용률, 도시 신에너지 버스 비중 등 6개 지표를 2024년에 조기 달성했으며, 고속철도 영업거리, 허브공항 궤도교통 접속률 등 11개 지표도 연말까지 모두 완성할 예정 - 5년간 중국은 철도 영업거리 16.2만km(고속철도 1만km 증가), 도로 총거리 549만km(고속도로 3만km 증가), 고등급 항로 통항거리 1.76만km, 만톤급 이상 정박지 2,971개, 민항운송공항 263개를 보유하게 됨. '14.5계획' 첫 4년간 교통 고정자산 투자는 15.2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으며, 매일 평균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1.8억 명이 지역 간 이동하고 1.6억 톤의 화물을 운송하며 4.78억 건의 택배를 수령 - 교통운수부는 운송구조 조정을 심화해 철도·수로 화물 회전량이 각각 17.5%, 33.6% 증가했으며, 항구 컨테이너 철수 연운량은 연평균 약 15% 증가함. 2024년 전 사회 물류비용은 4,000억 위안 이상 절감되었으며, 이 중 교통운수 비용은 약 2,800억 위안 절감됨. CR450 동차조 발표, 첫 국산 대형 유람선 정식 운영, C919 대형 여객기 상업 운영 상시화 등 기술 장비도 더욱 선진화
	○ 상무부, 상반기 외자 유치 4,232.3억 위안 기록 -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6월 전국에 신설된 외상투자기업이 30,014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으며, 실제 사용 외자 금액은 4,23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다고 발표. 제조업 실제 사용 외자는 1,090.6억 위안, 서비스업은 3,058.7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고기술 산업 실제 사용 외자는 1,278.7억 위안을 달성 - 고기술 산업 중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화학약품 제조업, 항공 우주기기 및 설비 제조업, 의료기기설비 및 기계 제조업의 실제 사용 외자가 각각 127.1%, 53%, 36.2%, 17.7% 증가함.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의 대중국 실제 투자가 8.8% 증가했으며, 스위스, 일본, 영국, 독일, 한국의 대중국 실제 투자가 각각 68.6%, 59.1%, 37.6%, 6.3%, 2.7% 증가(자유항 경유 투자 데이터 포함) - 외자 유치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신설 외상투자기업 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고기술 산업과 전략적 신흥 산업 분야에서 외자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2024년 중국 인공지능 산업 규모 7,000억 위안 돌파 -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제56차 '중국 인터넷 발전상황 통계보고'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7,000억 위안을 돌파하며 연속 여러 해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함. 올해 상반기 중국의 생성형 AI 제품은 기술에서 응용까지 전방위적 진전을 이루었으며, 제품 수량이 급증하고 응용 장면이 지속적으로 확대 - 2025년 3월까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등록을 완료한 생성형 AI 서비스는 346개에 달하며, 중국 AI 제품의 급성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음. DeepSeek는 출시 20일 만에 전 세계 일일 활성 사용자가 3,000만 명을 돌파하고 140개 국가 및 지역의 앱마켓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사용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 됨 - 2025년 6월까지 사용자들이 생성형 AI 제품을 이용해 질문에 답하는 비율이 80.9%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산 AI 제품은 천억 급 매개변수 규모와 다중모드 능력 등에서 돌파구를 마련함. 사무협업, 교육 보급화, 공업 설계, 콘텐츠 창작 등 장면과 깊이 융합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스마트 응용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중국은 이미 전 세계 AI 특허 최대 보유국으로 전체 신청량의 38.58%인 157.6만 건을 차지 ○ 상하이, 하반기 5억 위안 소비 쿠폰 추가 발행 - 상하이시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억 위안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러·상하이' 서비스 소비 쿠폰을 계속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번 소비 쿠폰은 적용 범위 확대로 문화 소비 쿠폰을 신설하고, 관광숙박 쿠폰에 농촌 민박 쿠폰을 추가했으며, 체육 쿠폰은 '헬스'와 '관람' 두 가지로 세분화해 경기 공연업을 지원 - 발행 방식 최적화로 관광 소비 쿠폰은 실제 사용 상황과 소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첨'에서 '선착순'으로 변경해 발행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임. 분야 간 연동 강화로 시장화 방식을 통해 요식, 관광, 영화, 체육, 문화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영화 쿠폰 발행 플랫폼은 요식·관광 플랫폼과 연계해 쿠폰 패키지 형식으로 분야 간 연동을 실현해 소비 파급 효과를 확대 - 요식 소비 쿠폰은 3.5억 위안을 투입해 '추첨' 방식을 계속 채택하며, 첫 신청은 7월 26~28일이고 쿠폰은 300위안 이상 구매 시 90위안 할인, 500위안 이상 180위안 할인, 1,000위안 이상 400위안 할인 3종류로 매월 1회 추첨하며 1인당 매회 1장 한정. 관광 소비 쿠폰은 8,000만 위안을 배정해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숙박 쿠폰과 관람 쿠폰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숙박+' '관람+' 복합형 상품을 지원
	○ 신장 첫 저공(비행계곡) 경제산업 혁신시범기지 건설 착수 - 우루무치 경제개발구에서 중국공정원 원사 우광휘 팀이 이끄는 신장지능장비연구원과 우루무치도시건설투자그룹이 공동으로 '저비용 밀리미터파 저공 기상 레이더 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정식 시작함. 이 프로젝트는 혁신 기술을 통해 저공 기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장 저공 기술의 규모화 응용에 핵심 지원을 제공할 예정 - 밀리미터파 레이더 시스템은 저공 풍절변, 뇌우 등 재해성 날씨를 15분 전에 조기 경보할 수 있어 농업 식물보호, 물류 배송, 응급 구조 등 장면에서 응용 가능하며 저공 비행 안전 기술 난제를 해결함. 프로젝트는 비행 규칙 제정, 비행 인재 양성 등 여러 방면을 포괄하여 신장 저공 기술의 규모화 응용에 핵심 지원을 제공 - 우루무치도시건설투자그룹은 182무(약 12헥타르)의 부지를 전문 예약하여 신장 첫 저공(비행계곡) 경제산업 혁신시범기지 건설을 시작함. 향후 원사 팀과 함께 항공우주 저공 혁신센터, 베이더우 원격탐사연구원 등 운반체를 공동 건설하고 '전 신장 저공 교통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일장망' 생태권을 구축하여 신장이 저공 경제 경쟁에서 선기를 잡도록 도울 예정이며 중앙아시아 시장으로 확산할 계획
	○ 텐진, 첫발 경제 고품질 발전 위한 16개 조치 발표 - 텐진시 상무국 등 8개 부서가 '텐진시 첫발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표하여 3개 방면 16개 조치를 포함함. 국제·국내 브랜드 집결지와 육성지를 조성하여 '전국을 사고 팔고, 전 세계를 사고 파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첫발 경제 생태권 구축, 첫발 경제 플랫폼 구축, 첫발 경제 발전 환경 최적화를 중점으로 추진 - 첫발 경제 생태권 구축을 위해 첫 매장, 첫발 활동 인정 기준을 연구 제정하고 첫 매장 등급, 첫발 활동 평가 체계를 구축함. 상업, 과학기술, 인공지능+, 문화관광, 체육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신제품, 신기술, 신서비스, 신모델, 신업태 등을 중점 유치 프로젝트로 삼고, 첫 매장과 첫발을 선두로 구매, 연구개발, 디자인, 결산, 물류 등을 일체화한 산업 체인을 육성 - 첫발 경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선진제조연구개발기지+문화명성+국제소비중심도시' 3대 차원을 중심으로 일련의 첫발 센터를 구축함. 진제이, 이평구, 우다다오, 해방북로는 '백년 건축+몰입형 첫 매장' 모델을 혁신하여 해하 국제 고급 소비 첫발지를 조성하고, 빈해신구는 하드 테크 제품 글로벌 첫발에 주력하며, 운하문화대는 무형문화재 첫발 공방 클러스터를 혁신하고, 공항은 국제 트렌드 플래시 첫발지로 포지셔닝하여 '해륙공 연동, 산업도시문화 융합'을 실현
	○ 주택임대조례 정식 발표, '임대구매 병행' 기초 공고히 함 - 국무원 총리 리창이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주택임대조례'를 공포했으며, 이는 주택임대 활동을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주택임대 관계를 안정시키고 주택임대 시장의 고품질 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전을 촉진하여 임대구매 병행 주택제도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조례는 2025년 9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 - 조례는 주택임대 시장 발전이 시장 주도와 정부 인도의 결합을 견지한다고 명확히 제시함.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민 가정이 자가 주택을 임대시장에 내놓도록 장려하고 '사회 재고'를 활성화하며, 기업이 오래된 공장, 상업사무용 건물, 자가 보유 상품주택 등을 개조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 증량'을 확충하여 '전민 참여, 다원 공급'의 임대주택 보장망을 형성 -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임대 관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임대주택이 공공서비스 향유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적극 추진함. '고진저출' '장수단지' 등 행위에 대해 조례는 '전대 경영에 종사하는 주택임대기업은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자금 감독관리 계좌를 설립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금융화 운영 경향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고, 임대료 조정 '모니터링+인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구 이상 시급 지방 정부는 주택임대료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행정구역 내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유형 주택의 임대료 수준 정보를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
	○ 글로벌 공급망 촉진 보고서 발표 -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에서 중국무역촉진회가 2025년판 '글로벌 공급망 촉진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글로벌 인프라 연결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남방 인프라 건설이 질적·속도적으로 증가하고, 글로벌 해운 상호 연결 수준이 변동 속에서 회복 상승하며, 철도·항공 파이프라인 운송 능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 - 기술 혁신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추진 작용이 더욱 현저해져 증강현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성숙하고, 탄소 포집 및 봉인, 스마트 그리드 등 녹색 저탄소 기술이 빠르게 보급 응용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디지털화, 녹색화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 - 중국편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발전 촉진을 위해 기초시설 상호연결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확고부동하게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하며, 글로벌 공급망 개방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글로벌 공급망 금융서비스 효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불확실한 세계에서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더 많은 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고 총결. 산업편에서는 드론, AR 안경, 인형 로봇, 수력발전, 대두, 와인 등 6종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도보를 그려 각 공급망의 상중하류 분포를 명확히 전시
일본	○ 홋카이도, '시험 가능한 대지'로 실증실험 유치...드론 시험에 한랭·광활함 활용 - 홋카이도 동쪽 끝에 위치한 시베츠초가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자연을 활용해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시험 가능한 대지' 사업을 추진 중.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과 지역 산업의 과제 해결에 기여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실험 장소를 제공하며, 도쿄 23구와 거의 같은 면적에 인구는 약 5,000명인 시베츠초는 연어 어업과 낙농업이 기간산업 - 소프트뱅크가 시베츠초를 드론 비행 시험 장소로 선택해 2024년 12월 영하 2도의 강풍 속에서 가솔린과 배터리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드론'의 비행 실험을 실시. 약 40km를 80분에 걸쳐 비행하며 한랭지에서의 장시간 운용 실효성을 확인했으며, 소프트뱅크 측은 '항상 좋은 조건이 갖춰진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원했고 지역에 뿌리내려 신뢰관계를 구축한 시청의 존재가 원활한 실시로 이어졌다'고 평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홋카이도와 삿포로시 등이 만든 STARTUP HOKKAIDO 실행위원회는 '홋카이도를 시험 가능한 대지로'를 내걸고 도내에 창업과 스타트업을 유치. 2023년 발족 이후 2024년까지 중개한 실증실험 등은 189건, 매칭한 자치체는 57개에 달하며 2029년까지 전체 179개 시정촌으로 확대할 목표. 한랭지와 광대한 과소지역이라는 불편함을 역으로 '지리적 이점'으로 삼는 열의는 지역 활성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반영
	○ 도요타, 유럽에서 수소 공급망 전체 구축...택시·물류로 잇따라 협업 - 도요타자동차가 수소 선진지역인 유럽에서 사업을 확대하며 연료전지차(FCV)를 활용한 부품 물류가 본격 가동. 벨기에 디스트에 있는 도요타 유럽법인의 부품 물류 거점에서 네덜란드 물류기업 보스 트랜스포트 그룹이 5월 하순부터 FCV 트럭 운용을 시작했으며, 하루 1회 로테르담까지 왕복(약 350km)에 이용하고 약 20분 충전으로 약 400km를 주행 - 프랑스에서는 FCV 택시 등 약 800대를 운용하는 합작회사 '하이세트코'가 파리 근교에 거점을 설치. 도요타가 차량을 제공하고 프랑스 산업가스 대기업 에어리퀴드가 수소 제조·공급, 에너지기업이 수소스테이션 운영·보수를 담당하는 등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운전사와 사업자에게 수소 공급을 포함한 고정가격 패키지를 제공해 디젤차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실현 - 도요타그룹의 도요타통상은 2024년 독일에서 산업가스 대기업 메서와 수소사업 합작회사를 설립해 FCV 버스, 트럭, 항만기기, 지게차와 함께 수소 제조·공급도 제공. 도요타는 독일 BMW, 다임러트럭과도 수소 분야에서 제휴하며 '지금 경쟁해도 소용없다. 함께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전략으로 보급을 위한 사업 구상력이 요구되는 상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도쿄도, 방재대책으로 세계 '허브도시' 목표...기술교류 틀 확대 - 도쿄도가 세계 도시들과 방재대책 지견 공유 및 기술교류 확대를 추진하며, 도쿄도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제도시 네트워크 'G-NETS'의 틀을 발전시켜 도쿄가 도시 간 '허브'가 되어 기후변화와 재해 등 세계 공통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함.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미국 방문 중 '멀티시티래터럴리즘(다도시간주의)'이라는 신조어를 제시 - G-NETS는 도쿄도가 2022년 출범시킨 세계 주요도시 네트워크로 환경시책, 안전안심한 도시, 포용공정한 사회를 3대 축으로 하며, 지금까지 시장급 회의를 2회 개최. 2024년 회의에는 독일 베를린, 대만 타이베이 등 45개 도시가 참가했으며 2026년 4월 3차 회의를 개최 예정. 고이케 지사는 '국가 간은 패권 다툼에 빠져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며 국제정치의 속박이 적은 도시 간이라면 기후변화와 방재대책 등 산적한 세계 공통 과제에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 - 2024년 12월 아동정책, 방재 소프트 대책, 재생가능에너지·신에너지 활용, 녹화 추진 4개 테마로 G-NETS 실무담당자급 회의에 워킹그룹을 설치. 2025년 5월에는 G-NETS 3차 실무책임자급 회의를 개최해 61개 도시가 참가하여 기후변화와 재해대책을 논의했으며, 동시에 아시아 최대급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열어 최첨단 기술을 발신하는 등 이러한 활동의 확대도 염두에 둠
	○ 전국지사회의, 아오모리에서 개막...인구감소 대책과 외국인 수용 논의 - 전국지사회가 7월 23일 아오모리시에서 전국지사회의를 개최하여 24일까지 이틀간 인구감소 대책, 육아 지원, 방재 등에 대해 각 도도부현 지사들이 논의. 외국인 수용과 다문화 공생,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도 주요 테마가 되며 지방창생 추진을 요구하는 제언도 발표할 예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23일에는 전국지사회 무라이 요시히로 회장(미야기현 지사) 등 43명의 지사가 출석했으며, 무라이 회장은 '인구감소와 사회 인프라 노후화, 물가 고등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고 인사.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지방에서는 지역 산업과 커뮤니티 쇠퇴에 대한 위기감이 강해 전국지사회에서는 국가에 대해 인구감소 대책 관련 사령탑 설치와 재정 지원을 요청할 예정 - 지방의 주력 산업에 대한 우려도 강하며, 특히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우려.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후쿠오카지점 조사에 따르면 규슈·오키나와 기업 중 향후 1년 이내 마이너스 영향을 예상하는 비율이 38.7%이며,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한정하면 71.4%에 달해 규슈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서 영향을 우려하는 움직임이 강화
	○ 규슈·오키나와 자동차 관련 기업, 7할 이상이 트럼프 관세로 '마이너스' 전망 -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후쿠오카지점이 발표한 규슈·오키나와 기업 대상 미국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 영향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향후 1년 이내 마이너스 영향을 예상하는 기업 비율이 38.7%로 나타남. 자동차 관련 기업에 한정하면 71.4%에 달해 규슈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서 영향을 우려하는 움직임이 강화 -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4%였으며, 자동차 관련 '수송용기계·기구제조'만 보면 마이너스를 예상하는 기업 비율이 71.4%로 전국 조사(68.1%)를 3포인트 상회. 동 지점 담당자는 '규슈에는 자동차 관련 공급망이 있어 관세에 의한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고 분석 - 조사는 6월 17~30일에 실시되었으며 규슈·오키나와에 본사를 둔 865개사로부터 응답을 받음. 규슈 지역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특성상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수소산업 진흥 총회, 후쿠오카현에서 개최...약 200명 참가 - 후쿠오카현에서 수소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후쿠오카현 수소 그린성장 전략회의'가 7월 18일 후쿠오카시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수소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과 자치체, 금융기관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가했으며, 해외에서는 대형 안전 개발이 좌초되는 예도 있는 가운데 선진사례와 법적 지원 소개, 참석자 간 교류 기회 등을 통해 수소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함 - 사무국이 사업보고를 한 후 현이 연계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 주일대표,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서부가스 등이 강연. 마지막으로 참가자 교류회를 1시간 가까이 마련했으며, 동 회의는 2004년 전신인 수소 산학관 조직 '후쿠오카 수소에너지 전략회의'로 시작해 회장을 맡는 일본제철 사토 나오키 부사장은 '20년에 걸친 활동으로 축적한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 수소사회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술회 - 후쿠오카현은 일본 내에서도 수소 관련 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수소에너지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산학관 연계를 통한 수소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 약 170개사·단체가 가맹한 비영리조직 '워터스토프넷'이 수소 프로젝트 시작과 조정을 담당하며 유럽에서의 수소 보급 기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소 가격이 큰 과제로 수요 부진이 고가격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 사업자 간 리스크 분담이 사업 지속성 확보에 유효한 수단
	○ 규슈 기업, 3분기 만에 수익 악화...4~6월 원재료와 인건비가 부담 - 니시니혼시티은행이 발표한 2025년 43월기 대비 8.6포인트 악화. 악화는 3분기 만이며 원재료와 물건비 고등, 인건비 증대가 수익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업종별 내역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가구' '요업·토석' 등, 비제조업에서는 '건설' '도소매' '부동산' '운수통신'의 수익이 악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조사를 담당한 NCB리서치&컨설팅은 '기업 매출액 신장에 대해 수익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부동산에서는 토지가격이 후쿠오카 도시권을 중심으로 고등해 실수요용 물건 개발과 판매에 고전 - 조사는 동 은행의 주요 거래처를 대상으로 6월 1일 실시해 266개사로부터 응답을 받음. 응답 기업 중 중소기업이 80%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84%에 해당하는 223개사가 후쿠오카현내 기업.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이 기업 수익을 압박하는 가운데 매출 증가가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
	○ 아사히카와·후라노 등 숙박세 신설..총무상이 10개 시정촌에 동의 -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이 7월 22일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와 후라노시 등 10개 시정촌의 숙박세 신설에 동의. 각 자치체는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자로부터 규정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며, 동의한 다른 지역은 오비히로시, 하코다테시, 오토후케초, 시무캅푸무라,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기후시, 미에현 토바시, 구마모토시 - 아사히카와시는 2026년 4월부터 1인 1박당 200엔을 부과해 연간 약 3억 8,000만 엔의 수입을 예상. 세수는 숙박자를 늘리는 활동 등에 충당할 예정이며, 숙박세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시 등이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 신설 동의분을 포함하면 도입 자치체는 약 30개에 달함 - 숙박세는 각 자치체의 조례에 기반한 법정외세로 도입에는 총무상의 동의가 필요. 관광 진흥과 관련 인프라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와 오버투어리즘 대책 재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향후에도 도입 자치체가 증가할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간사이전력, 원전 신설 위한 조사 발표 - 간사이전력이 미하마원자력발전소(후쿠이현 미하마초)에서 원전 신설을 위한 지질 등의 조사에 착수. 미하마원전은 1, 2호기 폐지가 결정되어 3호기만 가동 중이며, 정부는 폐지가 결정된 원전이 있는 발전소 부지 내에서 차세대형 원전 신설을 구체화하는 방침을 제시했고 간전도 건설 교체를 위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 - 조사 개요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은 후 실제 조사에 들어갈 예정. 모리 노조무 사장은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 장래를 위해 리플레이스를 해야 하고 그 판단을 위한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으며, 지질과 지형 등의 조사는 원전 건설을 위한 첫 프로세스로 일반적으로 원전 신설 조사 등에 약 8년, 건설에 약 12년 총 20년이 소요 - 전국에는 폐로 예정과 가동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계획 중인 것 등을 포함해 원전이 68기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이거나 가동 절차를 진행하는 26기를 보면 20년 후인 2045년 말 시점에서 운전 개시 60년을 초과하는 원전이 8기로 신증설 계획 중인 것을 제외한 '기존 원전'의 약 30%에 달함. 간전은 미하마에 새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원전은 안전성을 높인 '혁신경수로'를 상정하며, 일반적으로 원전 건설 교체에는 1조 엔 규모의 자금이 필요
	○ 홋카이도 자동차부품 수출 7% 감소..6월, 9개월 만에 마이너스 - 하코다테세관이 발표한 6월 무역개황에서 홋카이도의 수출은 328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발동 후에도 호조였던 자동차 부분품이 7% 감소로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가리비 등 어개류·동조제품도 11개월 만의 감소인 10% 감소 - 6월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했으며 재수출품과 선박의 마이너스 요인 외에 어개류·동조제품은 호조였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ASEAN) 향이 16% 감소, 자동차 부분품도 미국 향이 26% 감소. 대미 수출은 지금까지 전국 베이스에서는 감소해도 핫카이드는 플러스를 유지했으나, 수출 감소에 대해 '거래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관세정책의 영향인지) 판단은 어렵다'고 하지만 핫카이드 수출을 지탱하는 주요 품목이 잇따라 마이너스 - 2025년 1~6월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2,104억 엔으로 반기 베이스 증가는 2024년 상반기부터 3기 연속. 자동차 부분품은 495억 엔으로 동 18% 증가해 9기 연속 플러스였으며, 상반기 수입은 2% 증가한 8,993억 엔으로 4기 만의 플러스. 가리비에 한정된 5월까지 수출 추이를 보면 5월 수출액은 2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4월 대비 4할 가까이 감소했고 수출처별 비율은 1월 51%를 차지한 미국 향이 19%로 저하
베트남	○ 베트남, 신흥시장 지위 획득 위한 금융개혁안 발표 - 베트남 증권위원회는 신흥시장(Emerging)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7년 초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도입 계획을 발표.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확대하고 베트남 금융시장에 50억 달러(약 6조 9,60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입이 기대됨 - 베트남 정부는 법적 체계 완성과 중앙청산소 운영 자회사 설립을 포함한 2027년까지의 4단계 계획을 발표. 팜 밍 쩌 베트남 총리는 제럴드 톨레다노 FTSE러셀 글로벌 주식 및 멀티자산 부문 대표와의 회담에서 신흥시장 지위 상향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현재 프런티어 시장으로 분류된 베트남은 재분류 시 더 많은 펀드와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베트남 금융시장 규모는 2,450억 달러(약 340조 8,400억 원)로 역내 국가들에 비해 작은 편이나,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이후 높은 유동성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 신흥시장 지위로의 상향은 베트남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과 더 많은 자본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석탄발전 생산량 및 수입 증가...전력 수요 급증 대응 - 말레이시아는 세계 5위 LNG 수출국이지만 국내 가스 매장량 감소와 전력 수요 증가로 석탄 발전 생산량 확대와 수입 증가로 방향을 선회.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전력 수요 증가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말레이 반도 지역의 석탄 발전량은 5~6월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7월 전반부에만 16.8% 증가 - 올해 상반기 석탄 수입량은 2,090만 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가스 발전은 저렴한 석탄 가격과 전기요금 상한제로 인해 비효율적이라 외면받는 상황.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현재 2%에서 2030년 52%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가스 발전 용량을 50%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2배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나 당분간 석탄에 계속 의존할 전망 -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전환 딜레마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를 제시.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 의존도가 불가피한 상황
	○ 말레이시아, 말라카 내륙항 개발로 철도 물류 효율화 추진 - 압 라우프 유소호 말레이시아 말라카 주총리는 알로르 가자 지역 타보 나닝에 철도 화물 운송을 위한 말라카 내륙항 개발을 발표. 52.89헥타르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말라카와 인접 주인 조호르, 느그리 썬빌란의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말라카공사는 2025년 6월 13일 DS 레일 모빌리티와 1단계 총 개발비용 2억 3,080만 링깃(약 755억 8,200만 원) 규모의 개발 협약을 체결 - 이번 프로젝트는 MCORP 하이테크 파크 개발의 일환으로 친환경 기술과 저탄소 철도 연결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환경·사회·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채택. 공공사업부는 내륙항 개발 지원을 위해 도로 확장, 사면 보강, 배수 시설 공사를 포함한 3,000만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링깃(약 98억 2,300만 원) 규모의 도로 개선 사업을 승인했으며, 프로젝트는 현재 상세 설계 최종 단계에 있고 2025년 8월 초 토지 수용 절차 착수, 12월 시공사 선정이 예상됨 - 말라카 내륙항은 말레이시아의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철도 물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
라오스	○ 라오스-베트남, 비엔티안서 2025 무역박람회 개최...양국 관계 강화 - 7월 17일 양국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라오스-베트남 무역박람회가 비엔티안에서 공식 개막. 말라이통 코마시트 라오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박람회가 라오스와 베트남 간 포괄적 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박람회는 양국의 무역, 투자, 관광 촉진을 통한 사회경제 발전 지원을 목표로 함 - 베트남과 라오스 간 양자 무역액은 2024년 22억 5,000만 달러(약 3조 1,140억 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38.2% 증가했으며, 2025년 첫 5개월 동안 16억 달러(약 2조 2,144억 원)를 달성. 베트남 기업 대표단은 라오스와 태국 동북부 지역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라오스 기업들과 투자, 기술 이전, 합작 사업을 추진할 계획 - 이번 무역박람회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특히 베트남 기업들의 라오스 시장 진출과 양국 간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오스는 베트남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
태국	○ 태국 차기 중앙은행 총재, 경기 부양 위한 금리 인하 지지 - 현 정부저축은행장 겸 최고경영자인 비타이 라타나콘이 2025년 10월 태국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할 예정. 동 사안은 태국 내각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국왕의 승인을 앞두고 있음. 비타이 차기 총재는 현재 1.75%인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태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관세 협상, 부진한 산업 심리, 저조한 관광 및 제조업 실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비타이 차기 총재의 금리 인하 지지 입장은 현 중앙은행 지도부의 불충분한 금리 인하를 비판해온 여당 프어타이당과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각에서는 차기 총재의 거시경제 정책 분야 관련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 - 태국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조율이 향후 태국 경제 회복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차기 총재 취임 후 통화정책 변화가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
필리핀	○ 필리핀, 미국에 주요 수출품 무관세 추진 - 랄프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무역 관계 심화와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에 대한 선별적 수출품 무관세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8월 1일부터 필리핀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필리핀은 2024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50억 달러(약 6조 9,210억 원)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 - 필리핀은 시장 확대와 제조업 투자 증대를 위해 미국 및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피치 솔루션의 연구부서인 비엠아이 리서치는 필리핀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국방 정책 공약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국방비 지출 확대를 전략적 양보 카드로 활용해 미국의 상호 관세를 1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 필리핀의 대미 무역 전략은 경제적 이익과 안보 협력을 연계하는 접근법을 채택.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활용하여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이 양국 간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싱가포르	○ 싱가포르 동티모르 아세안 가입 지원 위한 'eSTARS' 이니셔티브 발표 - 싱가포르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회원국 가입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7월~2028년 12월 간 시행되는 '싱가포르-동티모르 아세안 준비 지원 강화(eSTARS)' 이니셔티브를 출범. 동 이니셔티브는 동티모르가 아세안의 제도적·거버넌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리더십 개발, 정책 조율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STARS 이니셔티브는 무역 촉진, 디지털 정부 서비스, 지역 경제 협력, 세관 조화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동티모르 공무원들의 제도적 지식을 강화하고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싱가포르 내 관련 대학원 과정 수강 기회를 제공. 이는 동티모르의 내부 개혁을 촉진함과 동시에 물류·디지털 인프라·정부 계약 부문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진입 위험을 낮추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동티모르는 2025년 11월 아세안 열한 번째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싱가포르의 지원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뿐만 아니라 지역 통합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세안의 확대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정치적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 교역 활성화 모색 - 7월 17일 싱가포르중화총상회(SCCCI)와 메이뱅크가 국경 간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양측은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SEZ)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싱가포르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메이뱅크는 무역금융, 현금관리, E SG 금융상품, 신속 계좌 개설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 - 이번 MOU를 통해 SCCCI 소속 기업회원 약 5,000개사는 지속가능성, 할랄 자문, 금융 서비스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련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메이뱅크는 아세안 10개국 전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SCCCI 회원사들의 지역 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협력은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례.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新수도 누산타라 개발 사업 일시 중단 검토 - 바트라 바농 인도네시아 하원 제2위원회 부위원장은 동부 칼리만탄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 사업 일시 중단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동 제안은 나스탐당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신수도 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적 여력과 여타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나스탐당은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무상 급식 프로그램 등에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 향후 누산타라 개발 사업 과정에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주요 부처·기관을 동부 칼리만탄에 단계적으로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등 일부 고위 인사들의 근무·거주지를 동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사업은 조코위 전 대통령의 핵심 프로젝트였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재정 우선순위 재검토 논의가 시작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수도 건설과 민생 정책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로 부상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 캄보디아, 인프라 채권 규정 도입...시장 주도형 경제 전환 가속화 -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RC)는 7월 22일 호주 대사관과 공동으로 프놈펜에서 '인프라 채무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발표.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은 동 규정을 기반으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시장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 소우 소체앗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 사무총장은 인프라 부문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성장과 회복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 이번 이니셔티브는 금융 상품 다각화,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촉진, 다양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며, 국가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 프로젝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데릭 입 호주 대사는 '호주-캄보디아 개발협력계획 2025-2029'를 기반으로 캄보디아 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번 규정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인프라 채권을 활용하고 있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